

#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Use of Early Childhood Care Centers an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of Choosing an Institute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지경

Korea Labor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Ji Kyoung Kim*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검토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essential information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Us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Vol.5., this study analyzed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decide the use and type of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it is not easy for young children under three years old to use education and care institutes because of their preference for home care. Second, the mother's job status affects the child's use of child care centers and private institutes for education except for the using of early child education centers. Third, the affecting main factors for the use of child care centers are quite similar to critical factors for use of the private institute for education. Thus, young children using the private institute for educ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coming from a low-income class compared with the children using the early child education centers.

**주제어(Key Words):** 영유아(early childhood), 교육과 보육(education and care), 학원(private institute for education), 정책(Policy),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I. 서 론

### 1. 문제제기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은 여성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후 기관보육시설의 확충과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키고 영유아가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련정책 및 사업을 발전시켜왔다.

현재 영유아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를 통한 지원은 만 0-5세 영유아 중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료이고, 교육부를 통한 지원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취원아 중 만 5세아에 대한 학비보조이다(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 2003;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 2002; 교육인적자원부, 2002; 보건복지부, 2002). 그리고 이들이 취학 또는 취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률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서문희 외(2002)에 의하면 부모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71.6%로 그 중 64.0%만이 기관이용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육지원서비스 기관 각각의 이용률은 보육시설이 23.1%로 가장 높고, 유치원(18.2%), 학원(15.0%)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영유아를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기관이 아닌 학원의 이용비율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나정 외, 2003; 서문희, 2002)에서도 학원은 상당 비율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아가 이용하는 학원은 보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유아가 이용하는 학원은 특기 및 재능교육을 위한 사교

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연구결과(김지경, 2004)를 고려해보면 학원이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원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기관 이용과 관련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갖는 영유아가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을 이용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들이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기관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인가? 현재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기관에 보육료나 학비를 보조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부가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일원화하고 지원정책의 기준을 세우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준거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관한 연구(나정 외, 2003; 유희정, 2002 서문희, 2000; 서문희 외, 2000)는 연령 및 기관종류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를 비교하는 실태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결과로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유형의 결정요인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서문희(2001)의 연구에서 친인척에 의한 보육과 보육시설 종류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밝히고자 각각의 시설의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델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학원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여부와 기관유형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다항로짓모델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기관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관련정책을 구체화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용하는 기관의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기관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의 검토

자녀 교육이나 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나정 외, 2003; 통계청, 2002;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김승권 외, 2000; 서문희 외, 2000; Piecy, Collins & Kreader, 1999; OECD, 1999; NICHD, 1997; Casper, 1995; Akinson, 1994; Hofferth & Kisker, 1991; Butler, Brigham & Schultheiss, 1991)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가구특징과 어머니의 특징, 그리고 자녀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우선 가구의 특징으로는 가구의 형태와 지역, 그리고 소득수준이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가구의 형태에 있어서는 가족 내의 조모 등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서문희, 2001). 이는 보육기관의 이용이 자녀보육을 맡아 줄 수 있는 가족 내의 조력자가 없을 경우 차선책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내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핵가족인 경우보다는 비핵가족인 경우가 더 높을 것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동부에 비해 읍·면 거주자인 경우가 이용비율이 높고(서문희, 2001),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보

육시설의 이용률이 유치원의 이용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2; 나정 외, 2000).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거주하는 지역도 교육 및 보육기관의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최하위 소득군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35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유치원의 이용률이 보육시설의 이용률보다 높으며 학원의 이용은 소득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이는 보육 시설보다는 유치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영어, 음악, 체육 등과 같은 특별활동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해 볼 때,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특징으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그리고 보육에 대한 가치관이 자녀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선호하고(Piecy, et.al., 1999), 비공식보육 이용자 중에서는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sper, 1995).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시설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자녀의 보육시설이용률이 높고, 유치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서문희, 2001).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기관 선택에 있어서 교육내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정 외, 2000). 그러나 유치원 이용에 있어서 어머니가 중졸이하의 학력일 경우는 자녀가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나정 외, 2000). 이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시설보육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고 신뢰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시설보육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치원 이용에

대해서는 선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취업을 하였을 때 자녀의 보육시설을 오래 이용을 하고(서문희, 2001; 나정외, 2000; 서문희 외 2000), 어머니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자녀가 국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39.7%가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0). 결국 가정 내 조력자가 없으며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취업모의 자녀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기관의 유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가치관도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아동의 인지 및 사회발달을 강조하며 기관보육을 하는 경우는 보육제공자의 전문성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비공식부분의 보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친숙함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밝혀졌다(Butler, Brigham & Schultheiss, 1991). 국내연구에서는 서문희(2001)의 연구에서 자녀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국공립이어서 신뢰가 간다고 응답이 30.6%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승권과 조애저(2000)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안전, 교육측면에서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을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져 부모들이 교육이나 보육에 대해 갖는 가치관에 따라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특징으로는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자녀가 3세 미만이면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이웃에 의한 가정 내 보육을 선호하고, 3세 이상이면 시설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문희, 2001). 이는 어린 자녀일수록 가족 내 보육에 대한 높은 선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보육시설에서도 교사 1인당 돌보아 줄 수 있는 영유아의 수가 어린 영아보다는 유아가 더 많아 영아를 시설에서 기피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학연령에 가까운 유아의 경우는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선행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치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이다. KLIPS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에 재수생 이하 자녀의 유무를 묻고, 재수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개별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이용하는 기관의 수 및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되는 종류는 ① 학원, ② 개인 및 그룹과외, ③ 학습지, ④ 방과 후 교내보충학습, ⑤ 방과 후 교실, ⑥ 국공립어린이집, ⑦ 민간어린이집, ⑧ 놀이방, ⑨ 직장보육시설, ⑩ 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 일반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IPS 5차년도(2002년)에 조사된 만5세 이하 영유아 자녀 72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⑥-⑨)과 유치원(⑩-⑪), 그리고 학원(①)의 이용을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시간이 더 긴 것을 주된 이용기관으로 판단하여 범주화하였다.

#### 2.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에 따른 차이와 이용하는 기관 종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고, 이용여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로짓(Binary Logit)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이용하는 기관선택의 영향요인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항로짓 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교육 및 보육기관(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의 이용 여부'이며,

이용하는 경우는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설정하였다. 다항로짓모형에서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j=4$ )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j=1$ ),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경우( $j=2$ ),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 $j=3$ )로 나누어진다.

예컨대 모델에서 설명변수의 변수값이  $i$ 라고 할 때, 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은

$$\text{logit}_{i1} = \log [\pi_{i1}/\pi_{i4}]$$

로 나타낼 수 있다. 보육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은

$$\text{logit}_{i2} = \log [\pi_{i2}/\pi_{i4}]$$

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은

$$\text{logit}_{i3} = \log [\pi_{i3}/\pi_{i4}]$$

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항로짓 분석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모델은

$$\text{logit}_{ik} = \alpha_{ik} + x_i \beta_k$$

이다. 여기서  $\alpha_{ik}$ 는 상수항의 모수(parameter)이며  $\beta_k$ 는 회귀계수(regression parameter)이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 분석될 설명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녀특성, 어머니의 특성, 가구특성변수가 반영되었고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IV. 결과 및 해석

##### 1.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관련된 요인 및 결정요인

분석대상자인 5세 이하 영유아의 특성은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과 함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729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의 비율이 여아에 비해 8.2%p 가량 높고, 평균 연령이 만 3세이며, 특히 만3-5세 유아의 비율이 6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1세이고, 평균 교육년수가 12.9년이며 34.7%가 취업자이다. 분석대상자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9명이며 월평균 소득이 270.1만원, 핵가족의 비율이 84.6%, 도 지역의 거주자 비율이 49.8%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대상자의 특성을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51.3%이다. 이용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리고 가구의 소득수준이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기관이용보다는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서문희, 2001)의 결과와 같이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자녀의 평균연령(4.1세)이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평균연령(1.9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변 수	정 의
독립변수	자녀성별	남아:1(여아:0)
	어머니학력	전문대졸업이상:1(고졸이하:0)
	어머니취업여부	취업:1(미취업:0)
	거주지역	서울:1(그 외 지역:0)
	가족형태	비핵가족:1(핵가족:0)
연속변수	자녀연령	자녀의 만나이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자녀수	가구의 총 자녀수
종속변수	가변수 범주형변수	보육기관이용여부 보육기관 종류 이용함:1(이용안함:0) 유치원:1, 보육시설:2, 학원:3, (이용안함:4)

〈표 2〉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관련된 사회 인구학적 요인

(단위: n, %)

구 분	특 성	범 주	전 체	이용함	이용안함	$\chi^2$
			729(100.0)	374(51.3)	355(48.7)	
전 체			729(100.0)	374(100.0)	355(100.0)	
자녀	성별	남아	394(54.1)	206(55.1)	188(52.9)	0.33
		여아	335(45.9)	168(44.9)	167(47.1)	
	연령	0-2세	280(38.4)	39(10.4)	241(67.9)	254.18***
		3-5세	449(61.6)	335(89.6)	114(32.1)	
어머니	연령	평균(세)	3.0	4.1	1.9	
		35세 이하	579(79.4)	290(77.5)	289(81.4)	1.67
		36세 이상	150(20.6)	84(22.5)	66(18.6)	
	학력	평균(세)	32.1	32.4	31.7	0.34
		고졸이하	478(65.6)	249(66.6)	229(64.5)	
		전문대졸 이상	251(34.4)	125(33.4)	16(35.5)	
가 구	취업여부	평균(년)	12.9	12.9	12.9	
		취업	253(34.7)	165(44.1)	88(24.8)	30.02***
		미취업	476(65.3)	209(55.9)	267(75.2)	
	자녀수	1명	190(26.1)	76(20.3)	114(32.1)	7.3
		2명	452(62.0)	266(71.1)	186(52.4)	
		3명 이상	87(11.9)	32(8.6)	55(15.5)	
가족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명)	1.9	1.9	1.9	
		100만원 미만	51(7.0)	24(6.4)	27(7.6)	27.36***
		100-200만원 미만	269(36.9)	129(34.5)	140(39.4)	
		200-300만원 미만	216(29.6)	106(28.3)	110(31.0)	
		300만원 이상	193(26.5)	115(30.8)	78(22.0)	
		평균(만원)	270.1	273.1	260.5	
	가족형태	핵가족 비핵가족	617(84.6) 112(15.4)	316(84.5) 58(15.5)	301(84.8) 54(15.2)	0.01
	거주지역	서울 광역시 도	146(20.0) 220(30.2) 363(49.8)	84(22.5) 116(31.0) 174(46.5)	62(17.5) 104(29.3) 189(53.2)	4.09

\*\*\*: p&lt;.001

이용하는 자녀가 만 3-5세의 연령대에 89.5%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만 0-2세 연령대의 6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있어서도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44.1%로 이용하지 않는 자녀어머니의 취업비율(24.8%)보다 19.3%p 가량 높다. 이는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과 같은 양육지원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서문희, 2001; 나정 외,

2000; 서문희 외 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월평균 가구의 소득도 이용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월평균 가구소득(273.1만원)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260.5만원)보다 12.6만원 가량 많으며, 특히 월평균 300만원이상의 가계의 비율이 이용하는 경우가 30.8%인 반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2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초분석을 통하여 볼 때, 이들 특성에 따라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초분석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비율의 분포 또는 값의 차이만을 가지고 이들 특성들이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결정요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여부의 결정요인을 모델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3>은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기초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녀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을 포함하여 기초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은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보다는 취업한 경우에, 자녀의 나이가 아주 어린 영아의 경우보다는 유아의 경우가,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영유아가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취업여성의 자녀가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은 분명하나, 자녀가 영아인 경우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

면 현실적으로 자녀가 만3세 이상이 되어야만 기혼취업여성들이 기관을 통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기혼 취업여성이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으로 모성을 보호받고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원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이후 만 3세가 되기 전까지의 영아기에는 정부의 지원을 실효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자녀가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미미한 재정지원수준으로 인하여 대다수 가계들이 영유아 자녀에 대한 부담스러운 교육 및 보육비 지출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가구의 소득수준은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기관의 종류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를 고려하여 보면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학원의 이용에 가구의 소득 및 다른 특성들도 영향을 미칠

&lt;표 3&gt; 교육 및 보육기관이용 여부의 영향요인

변수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		-2.94(1.19)
자녀성별(여아)	남아	-0.06(0.21)
어머니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0.21(0.23)
어머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1.16(0.22)***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0.35(0.25)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37(0.28)
자녀연령	자녀의 만나이	1.34(0.09)***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0.09(0.02)**
자녀수	가구 총 자녀수	-0.28(0.17)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소득)	0.34(0.17)*
N		729
-2Log Likelihood		407.99***

\*: p&lt;.05, \*\*: p&lt;.01, \*\*\*: p&lt;.001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다음에서는 교육 및 보육기관 유형,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학원이용자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 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다방로짓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2.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유형에 관련된 사회인 구학적 요인 및 결정요인

<표 4>는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

의 특성을 이용하는 기관의 유형(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 및 보육기관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바와는 달리 기초분석의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하는 기관의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나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리고 가구의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연령분포를 유형별로 비교하여 보면 유치

<표 4>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관련 요인

(단위: n, %)

구분	특성	범주	영유아 연령		보육시설	학원	$\chi^2$
			374(100.0)	101(27.0)			
전체			374(100.0)	101(100.0)	200(100.0)	73(100.0)	
자녀	성별	남아	206(55.1)	50(49.5)	113(56.5)	43(58.9)	1.86
		여아	168(44.9)	51(50.5)	87(43.5)	30(41.1)	
	연령	0~2세	39(10.4)	2(2.0)	33(16.5)	4(5.5)	17.52***
엄마	연령	3~5세	335(89.6)	99(98.0)	167(83.5)	69(94.5)	
		평균(세)	4.1	4.4	3.8	4.1	
	학력	35세 이하	290(77.5)	72(71.3)	162(81.0)	56(76.7)	3.67
취업여부	학력	36세 이상	84(22.5)	29(28.7)	38(19.0)	17(23.3)	
		평균(세)	32.4	33.0	32.2	32.1	
	취업여부	고졸이하	249(66.6)	69(68.3)	132(66.0)	48(65.8)	0.18
가구	학력	전문대졸 이상	125(33.4)	32(31.7)	68(34.0)	25(34.2)	
		평균(년)	12.9	12.8	12.9	13.0	
	자녀수	취업	165(44.1)	32(31.7)	106(53.0)	27(37.0)	14.24***
가구	자녀수	미취업	209(55.9)	69(68.3)	94(47.0)	46(63.0)	
		1명	76(20.3)	20(19.8)	42(21.0)	14(19.2)	
	월평균 가구소득	2명	266(71.1)	71(70.3)	140(70.0)	55(75.3)	15.06*
가족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3명 이상	32(8.6)	10(9.9)	18(9.0)	4(5.5)	
		평균(명)	1.9	1.9	1.9	1.9	
	가족형태	100만원 미만	24(6.4)	1(1.0)	18(9.0)	5(6.9)	1.40
거주지역	가족형태	100~200만원 미만	129(34.5)	37(36.6)	70(35.0)	22(30.1)	
		200~300만원 미만	106(28.3)	24(23.8)	53(26.5)	29(39.7)	
	거주지역	300만원 이상	115(30.8)	39(38.6)	59(29.5)	17(23.3)	
거주지역	가족형태	평균(만원)	273.1	292.5	286.9	239.9	1.82
		핵가족	316(84.5)	85(84.2)	170(85.0)	61(83.6)	
	거주지역	비핵가족	58(15.5)	16(15.8)	30(15.0)	12(16.4)	
거주지역	거주지역	서울	84(27.5)	28(29.7)	41(20.5)	15(20.8)	4.04
		광역시	116(31.0)	32(31.7)	58(29.0)	26(35.6)	
	도	174(46.5)	41(40.6)	101(50.5)	32(43.8)		

\*: p<.05, \*\*\*: p<.001

원을 다니는 경우가 평균 4.4세로 가장 높으며 학원이 평균 4.1세, 그리고 보육시설이 평균 3.8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린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취학연령이 가까워지면 유치원을 더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나정 외, 2003; 서문희,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이용하는 기관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치원(31.7%)이나 학원(37.0%)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보육시설(53.0%)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가 어머니의 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기관의 이용여부뿐만 아니라 기관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가구의 총 자녀수에 따른 기관유형의 선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자녀수는 모두 1.9명으로 동일하나 분포를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가 2명의 자녀가 있는 비율(75.3%)이 유치원(70.3%)이나 보육시설(70.0%)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만으로 이들 특성

의 차이가 어떠한 교육 및 보육기관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결정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요인이 기관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기관 유형 선택을 다항로짓분석 모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5>는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유치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육시설이나 학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의 이용에는 자녀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이용에는 어머니의 취업과 어머니의 연령이 부(-)의 영향을, 그리고 자녀연령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나 기초분석에서 밝힌바와 같이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의 보육이

<표 5> 교육 및 보육기관 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변 수	유치원/이용안함		보육시설/이용안함		학원/이용안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9.09(1.86)***	-1.74(1.32)		-2.64(1.87)	
자녀성별(여아)	남아	0.24(0.14)	-0.01(0.11)	-0.11(0.15)		
어머니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0.07(0.16)	-0.09(0.12)	-0.18(0.16)		
어머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24(0.15)	0.72(0.12)***	0.41(0.16)*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0.35(0.16)	-0.13(0.14)	-0.16(0.18)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15(0.19)	0.21(0.16)	0.13(0.20)		
자녀연령	자녀의 만나이	1.87(0.16)***	1.17(0.10)***	1.46(0.15)***		
어머니연령	어머니의 만나이	-0.06(0.03)	-0.09(0.03)**	-0.11(0.04)**		
자녀수	가구 총 자녀수	-0.46(0.25)	-0.19(0.19)	-0.35(0.26)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소득)	0.84(0.24)***	0.23(0.18)	0.19(0.24)		
N			729			
-2Log Likelihood			1285.26			

\*: p<.05, \*\*: p<.01, \*\*\*: p<.001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계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만한 것은 정부의 지원조차 받고 있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비율의 영유아들이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서 이용하는 학원의 이용이 보육시설의 이용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고, 특히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에 비해 보육시설이나 학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의 학원의 이용이 대체로 유치원의 이용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선행연구결과(서문희, 2001)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며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보육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김지경, 2004)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교육 및 보육기관의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시점에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학원을 포함하여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여부와 기관 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유치원과는 달리 보육시설의 경우는 0세부터 이용가능하고 민간시설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에서 정부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기관의 이용비율이 낮다는 것은 어머니가 취업상태에 있을지라도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가족 및 친인척 등에 의한 개인보육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며 기관보육은 차선적으로 선택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출산률이 낮아지고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참가가 꾸준히 증가하며 비핵가족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등 자녀보육의 여건이 기관이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하고 있지만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형성되고 있지 못하며, 정부의 지원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영아에 대한 보육의 사

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서구 선진국과 같이 영아기 자녀들의 보육을 위하여 자녀의 부모들이 보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집중하여야 하며, 최소한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자녀들만이라도 기관보육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이용에 어머니의 취업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유치원의 이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치원의 이용이 보육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더라도 만 3세 이상이 된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이용은 대리양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의한 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유치원 이용대상을 만 3세로 제한하는 반면 보육시설의 경우는 0세부터 이용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이 나뉘어 인식되고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유아 교육과 보호의 개념이 통합된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이 강조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볼 때,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연령을 보육시설과 같이 낮추어야 하며, 교육과 보육을 이분화 하여 인식하고 기관을 운영 또는 지원하기보다는 서구 선진국과 같이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정부지원 부처도 통합된 체계 또는 긴밀한 협력체계 하에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보육시설이용과 학원이용의 영향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학원의 이용이 보육시설과 같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자녀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해 볼 때, 자녀의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 학원을 이용하는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러하다면 보육시설이 아닌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나하면 이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에 있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법정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등의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원을 이용한다면 관련제도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학원을 이용한다면 관련 기관의 설립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학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시설로서 학원의 이용을 후속연구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득변수가 보육시설이나 학원이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유치원의 이용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가계가 지불하는 교육 및 보육비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여 행하는 특별활동(영어, 미술, 체육 등)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적게는 1-2가지, 많게는 7가지 이상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흥용희, 2001)을 고려해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영유아기의 교육 및 보육기관 조차 소득수준에 따른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서열화를 조장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정부가 이러한 사실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 선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주거지와 이용하는 기관까지의 거리 등 기관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여 주요 요인별로 묶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

유아 자녀가 기관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복수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그 이용의 정도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보육관련 정책수립에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육통계연보.
- 김규수, 석호현, 김숙자(2002). 유치원 운영현황 및 경영실태분석. 열린유아교육학회 2002 춘계학술대회, 31-70.
- 김승권, 조애저(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경(2003). 자녀연령별 사교육이용 유형 및 지출비율. KLIPS Research Brief No.5, 한국노동연구원.
- (2004). 미취학아동의 사교육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제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99-319.
- 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 장영숙, 문무경(2000).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및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변용찬 외(2001).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2). 보건통계연보.
- 서문희(2000). 보육비용 및 비용분담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4호.
- 서문희, 임상현, 임유경(2000).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기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자격관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아동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1-265.
-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

- 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희정(2002).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유희정, 강정희(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혁신.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 Atkinson, A. (1994). Rural and Urban Families's use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43(1), 16-22.
- Butler, J. N. Brigham & S. Schultheiss (1991). *No Place like home: a Study of subsidized in-home and relatives child day care*. Philadelphia, PA: Rosenblum and Associations.
- Casper L. M. (1995). What does it cost to mind our preschooler. U.S. Bureau of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Report*, 52.
- Hofferth, W. B., Kisker, E. (1991). *The Demand and Supply of Child Care in 1990*, NAEYC.
- NICHD (1997). *Poverty and Pattern of Child Care*. Russel Sage Foundation.
- Piecy, J. B., A. Collins & J. L. Kreader (1999). *Patterns and Growth of Child Care Voucher Use by Families Connected to Cash Assistance in Illinois and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
- OECD (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Getting the most from the investment*. Education Policy Analysis.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2004년 2월 25일 접수, 2004년 6월 4일 채택)